



새 동지 틀고 활기 되찾은 충북도지회

# 열정으로 베이커리 새 역사 쓰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바람에 꺾이지 않는 법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가운데서도 베이커리에 대한 올곧은 열정 하나로 굳세게 견뎌온 충북도지회가 재도약을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회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역 제과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을 계획하고 준비하느라 신바람이 도는 충북도지회를 들여다본다. 취재\_김진미 기자·사진\_이성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는 청주가 낳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다. ‘직지’의 보급으로 세계 활자문화에 큰 획을 그은 청주시에 베이커리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기 위해 한데 뭉친 (사)대한제과협회 충북도지회(지회장 이영희)가 있다. 지역 경기의 침체로 제과업계 전반에 그 어느 때보다 단절이 필요한 때 충북도지회는 회원업소의 발전이 지회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신념으로 회원들이 열정을 갖고 다시 하나로 뭉치는 지회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나씩 만들어 가는 새로운 틀  
충북도지회는 지난 몇 년 간 계속된 부진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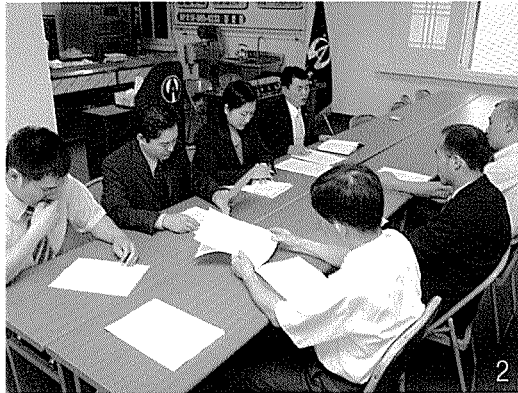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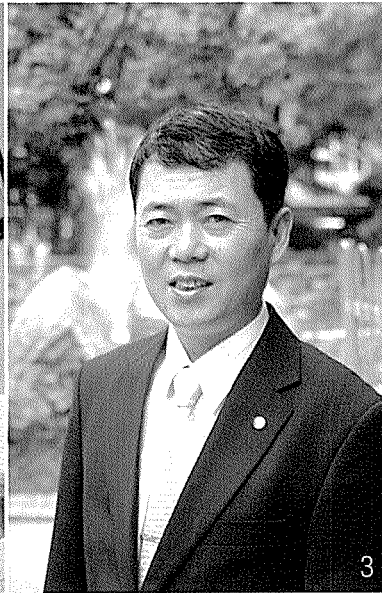
지부를 찍고 ‘함께 하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시작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충북도지회는 지난 1990년 1월 충북지역 제과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다.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제과점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상호기술교류를 논하느라 분주했던 시절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모두 모여 체육대회나 연합 세미나 등 충북도지회 차원의 행사가 자체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세미나장을 만들어 실용적인 신제품을 선보이며 회원들에게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름철에는 우유와 빙수 재료를 공동구매하는 등 회원 단합과 비용절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만큼 단합된

지회였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불어 닦친 경기침체로 어려운 위기를 맞은 충북도지회는 세미나장의 기계를 내다 팔고 사무실도 15평으로 축소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각자의 생존에 바쁜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임에서 빠져나가면서 충북도지회는 어려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지회에 활력을 주어야 충북도지회 회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회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안됐다. 이에 충북도지회는 지난 3월 청주시청 맞은편 건물에 충북도지회 겸 청주시지부 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충북도지회의 새 사무실은 지회 부활의 기지인 만큼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다. 첫인상이라



좌 충북도지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이영희 지회장, 전종섭 고문, 이찬수, 윤한수, 김태중, 이대희, 고미숙 사무국장. 1 충북도지회는 느슨해진 회원들을 단합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새로 동자를 든 지회 사무실에서는 달마다 임원진 모두가 참석하는 이사회가 열린다. 3 지난 5월 선출된 충북도지회 이영희 지회장은 충북도지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리더로 지회 임원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4 지난 3월 사무실과 함께 마련된 세미나실은 회원 상호간의 기술교류를 도모하게 될 발전의 터전이다.

고 할 수 있는 입구는 누구보다 먼저 회원을 맞게 될 사무국장의 책상을 놓았고, 안쪽에는 언제나라도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와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갖췄다. 세미나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갖추는 일이 지회의 많지 않은 재정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충북도지회 발전을 바라는 회원들의 정성어린 지원과 제과기계 업체들의 물심양면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도약의 '기본'을 갖춘 지회는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회를 이끌 '얼굴'을 선출하는 데도 일심단결했다. 지난 5월 제14차 총회를 통해 충북도지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선출된 이영희 지회장은 7년 동안 청주시 상당구 지역을 책임지고 맡아온 일꾼이다. 충북도지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이영희 지회장의 포부는 남다르다.

“예전에는 청주시지부, 충주시지부, 제천시지부가 하나로 뭉쳤지만 경기침체로 활동이 저조해졌고, 제천시지부는 아예 지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청주시지부와 충주시지부가 마음을 모아 예전처럼 다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제천시 제과업계도 다시 끌어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회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 열정이 있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영희 지회장은 “열정이 있으면 꿈은 이루어지고, 열정은 쉽게 전염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청주시지부와 충주시지부가 하나 될 수도 록 임원들과 논의를 거쳐 지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기술 세미나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 우선과제다. 이는 지역 제과점의 매출향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자연스럽게 협회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 제과점은 고전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 계절별로 신상품 출시와 특수절을 겨냥한 인기품목 위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두는 기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해마다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2번의 세미나와 3번의 지회 자체 세미나 등 총 5번의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충북도지회의 대외적인 권위도 높일 계획이다. (사)대한제과협회 충북도지회는 지난해부터 충청대학의 '충청요리및제과제빵경진대회'에 심사위원 자격

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19일, 업계의 꿈나무이자 미래의 회원이 될 고등학생들의 열띤 경연을 심사하기 위해 이영희 충북도지회장과 배재권 충주시지부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앞으로 충북도지회는 충청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북도지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원 참여가 저조한 요즘 제과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세미나 등을 통해 모인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꼭 필요한 제과재료를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이제 충북도지회에는 실현 가능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한동안 움츠려있던 회원들이 기지개를 펴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만 남았다. 이영희 지회장은 “협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회원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한다.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차곡차곡 실천해가는 충북도지회는 회원들에게 열정과 의욕을 불어넣는 지회로 거듭나면서 베이커리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